

조선조 外宴의 성악정재, 「歌者」*

신 경 숙**

〈국문초록〉

19세기 궁중 연향의 외연에는 성악정재 「歌者」가 있었다. 「가자」는 남성가객에 의해, 장시간동안, 여러 곡의 우리말 가요가, 참여자들이 음식을 나누는 동안 공연되었다.

이러한 정재 「가자」가 19세기 이전에도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논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1) 조선 전기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의 외연들에서 정재 「가자」의 공연이 확인되었다.
- 2) 조선후기 의례서인 『국조속오례의』의 외연들에서 정재 「가자」의 공연이 확인되었다.
- 3) 어느 경우나 공연 절차, 공연방식이 동일했다.
- 4) 이로써 정재 「가자」는 조선조 내내 공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핵심어 : 외연, 성악정재, 가자, 가자와 금슬,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정지회의, 양로연의, 진연의, 친림기로연의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임.

** 한성대

1. 본고의 관심

조선후기 外宴에 聲樂呈才가 존재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¹⁾ 정재명이 「歌者」인 이 성악정재는 연향참석자들이 각종 찬물을 받아 즐기는 대규모 절차에서, 그 감격적인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 공연되었다. 공연자는 '장악원 차비'들이 아니라 '여향에서 초빙된 가객들'이었다. 이들이 부른 노래로는 己丑(순조 29, 1829) 진찬에서 세자였던 孝明이 창작한 일련의 歌曲 작품들이 확인되었다. 정재 「歌者」의 발견은 외연의 성격, 외연의 구조, 악장의 음악적·문학적 장르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었다.

그런데 정재 「歌者」에서 불렀던 노래들은 효명 睿製作 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夜宴에서 여령들이 불렀던 〈樂歌三章〉은 「歌曲 세 곡」이 짝을 이름에도 현재 다수가 발견되고 보고된 바 있다.²⁾ 그렇다면 왜 外宴의 정재 「歌者」의 노래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되어 잃어버려진 것인가? 아니면 「가자」는 19세기 와서야 성립되어 작품이 너무 적은 탓인가?³⁾

본고는 이와 같은 의문들로부터 출발한다. 외연의 정재 「가자」의 노래 목록 발굴이 이 연구의 최선의 목표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재 「가자」가 언제부터 존재했었는지 조차 알 길이 없는 현 단계에서는 그 작업은 때로 헛된 수고로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정재 「가자」가 언

1)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299-324쪽.

_____, 「순조조 외연의 한글악장」,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287-313쪽.

2)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 -야연의 〈악가삼장〉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73-195쪽.

3) 19세기 외연은 기축 진찬(1829), 임진 진찬(1892) 두 번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연으로 거행되었다.

제부터 궁중연향에 정례화 되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이번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그 기원의 문제'에 관심 두는 것은 아니고, '조선조 외연에서의 존재 파악'에 중심을 둘 것이다.

정재 「가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향의례들이 가장 좋은 자료이다. 이미 밝혀진 19세기 「가자」 역시 19세기 진연의례들이 다수 세상에 빛을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세기 以前 곧 '鮮初로부터 18세기까지'의 연향의례들은 매우 드물다. '鮮初로부터 16세기까지'의 연향의례들은 현재 발견된 바 없으며, '17·18세기' 의례는 현재 4권이 남아 있을 뿐이다.⁴⁾ 그런데 이 4권마저 의식절차인 『儀註』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19세기 이전 外宴은 더 이상 의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조 내내 국가의식 규례집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를 주 텍스트로 삼아 정재 「歌者」의 존재여부를 찾아가고자 한다. 『國朝五禮儀』는 성종 5년(1474)에 완성되어 이후 개정보완편이 나올 때까지 국가의례의 중요한 전범 역할을 했다. 『國朝續五禮儀』는 성종조 국조오례의를 변화된 시의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영조 20년(1744)에 새로이 개정해 반포되었다. 이 책은 이후 조선말까지 국가의례의 중요한 전범 역할을 했다. 따라서 '鮮初로부터 17세기까지'는 『국조오례의』를 통해, '18세기'는 『국조속오례의』를 통해 정재 「가자」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을 밝힐 것이다.

4) 경오년 『풍정도감의례』(인조 8년, 1630), 기해년 『진연의례』(숙종 45, 1719), 갑자년 『진연의례』(영조 20, 1744), 을유년 『수작의례』(영조 41, 1765).

2. 『국조오례의』 외연의 〈가자와 금슬〉 공연

2-1. 『국조오례의』의 외연들

『국조오례의』는 五禮 禮式의 제정에 첫 착수한 세종때로부터 60년 가까이 걸려 성종 5년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작업이었으나, 이를 반포한 성종 5년이란 조선건국으로부터는 불과 82년 되던 해이다. 즉 이 오례의는 ‘鮮初’ 상황을 담아냈으며 이것으로 ‘이후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五禮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의 다섯 禮儀를 말한다. 궁중연향은 이 중 ‘가례’에 속한다. 이 책에는 가례 부분에 50가지의 개개 의례들을 전범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조선후기 외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의례로는 「正至會儀」 「養老宴儀」 두 가지가 있다.⁵⁾ 조선후기 외연은 주로 왕의 ‘즉위 30년’ ‘망오’ ‘망육’ 등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선초에는 아직 그런 前例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후기 같은 성격의 외연을 찾기는 어렵다⁶⁾. 그러나 ‘외연’은 본디 왕과 문무백관이 함께 하는 연향, 곧 ‘군신 회례연’의 형태의 연향을 말한다. 이런 연향 성격에서 볼 때, 위의 두 의례가 외연에 해당한다. 이 중 「정지회의」는 주로 오례의에서만 사용한 연향의식 명칭이다.⁷⁾ 「정지회의」란 정월과 동지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

5) 조선후기 외연은 반드시 ‘음식’과 ‘정재’를 갖추고 거행된 규모가 큰 궁중연향이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이 중 ‘음식’은 있으나 ‘정재’가 없는 경우(주로 중궁전 중심의 內宴들), ‘음식’과 ‘정재’ 모두 없이 거행되는 의례들(모든 종류의 朝賀儀, 望闕禮, 朝參儀 등)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음식과 정재’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군신간 회례연만을 찾아낸 것이다.

6) 이런 까닭에 『국조오례의』에는 ‘진연, 진풍정, 진찬’과 같은 후기 명칭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명칭들이 격식을 갖춘 國家禮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효종대 이후이고, 주된 사용은 조선후기이다.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45-57쪽.

7)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세종조 오례의 기록을 제외하고 보면,

하는 연향의식으로 대표적인 '君臣 會禮宴'이다.⁸⁾

『국조오례의』의 이 두 의식을 통해 '조선초부터 17세기' 외연에서도 정재 「가자」가 발견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2. 「정지회의」

정재 「가자」의 공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지회의」 의식 절차를 알아보기로 보기로 한다.

〈표1〉 『국조오례의』, 「정지회의」⁹⁾

‘준비’

각종 기물 배설
종친 문무3품 이하 拜位에 나아감 (연주)
왕세자 나아옴 (연주)
전하 여에서 내려 좌에 오름 (연주)
왕세자 이하 四拜 (연주)

酒器 올림 (연주)
饌案 올림 (연주)
꽃 올림 (연주)
膳 올림 (연주)

단 3번 나온다.

- 8) 『국조오례의』에는 「정지회의」 절차와 거의 흡사한 「飲福宴儀」가 있다. 「음복연의」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참석자들이 祭物을 나누어 먹는 잔치를 말한다. 그 의식진행 절차는 「정지회의」와 같이 君臣이 함께 하는 외연의 성격을 띤다. 다만 ‘제사’ 후 연향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제외했다. 실록 기사들을 조사해 보면 주로 조선전기에 음복연이 많았고, 후기는 줄어들다가 영조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9) 본고는 『국조오례의』 영인본, 민창문화사, 1994. 주 텍스트를 삼았다. 같은 책, 144-146쪽.

‘제1단계’

제1작 - 왕세자가 올림

치사 올림

전하 술잔을 들 (연주)

제2작 - 班首가 올림

치사 올림

傳教를 내림

전하 술잔을 들 (연주)

왕세자 이하 俯伏 四拜 (연주)

왕세자 이하 자기 자리로 돌아감

‘제2단계’

전악이 歌者와 琴瑟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감

왕세자에게 饌卓, 꽃 드림

종친, 문무백관, 객사에게 찬탁, 꽃 드림

전하에게 탕 올림 (연주) **〔曲舞 임시로 略함〕**

왕세자 이하 자리에서 떠나 부복해 있다가 돌아옴

왕세자에게 탕 드림

종친, 문무백관, 객사에게 탕 드림

먹기를 마침

‘제3단계’

제3작 - 제조가 올림 (연주)

왕세자에게 술 드림

종친, 문무백관, 객사에게 술 드림

전하께 탕, 술 올림

술 9번 두루 올림

전하께 大膳을 올림

왕세자에게 膳 드림

종친 문무백관 객사에게 膳 드림

‘정리’

모든 상 물림

왕세자 이하 四拜
 전하 좌에서 내려 여를 타고 殿에 들어감 (고취)
 객사 퇴장
 왕세자 퇴장
 종친, 문무백관 퇴장

「정지회의」는 위와 같이 ‘임금과 종친, 문무백관, 객사들’이 함께하는 外宴이다.¹⁰⁾ 그런데 얼핏 「정지회의」는 후기의 외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 秀才도 보이지 않고, 爵도 단 세 번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2단계 의 중간 과정에 이르렀을 때 임금으로부터 ‘정재를 품지 받음’(음영 부분)을 알 수 있다. 이 ‘정재 품지’에 대한 기록은 細註로 되어 있는데,¹¹⁾ 순서에 의하면 3작부터 정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1,2작이 아닌 3작부터 정재가 배치되는 것은 18세기까지의 연향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형식이다.¹²⁾ 爵의 횟수 역시 1,2,3작 뿐으로 후기의 9작에 비해 아주 조촐한 듯 하다. 그러나 역시 3작의 끝 부분에서 ‘술은 아홉 번 행한다(음영 부분)’¹³⁾라고 기록하여 실제로는 모두 9작까지 실시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¹⁴⁾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제정된 「정지회의」 규모가 후기와 다

10) 조선전기 『국조오례의』의 외연 참여자 중에는 대부분 ‘客使’가 포함된다. ‘諸訪客’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실록을 통해 볼 때, 주로 왜인과 야인 객사들이다. 따라서 연향에는 이들의 안내를 위해 언제나 ‘通事’가 함께 한다. ‘객사’와 ‘통사’의 參宴은 후기와 다른 점이다.

11) “凡曲舞臨時稟旨” 『국조오례의』 앞의 영인본, 146쪽 상단.

12) 19세기 순조조에 들어오면서 ‘정재’ 횟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1작부터 혹은 두 번의 입장 때부터 정재가 공연되는 일이 일반화되어 정재공연 방식의 19세기 변화를 보여준다. 신경숙, 「19세기 진연문화와 문학」,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민속원, 2005, 80-84쪽.

13) “酒行九徧”.

14) 임금에게는 爵, 왕세자 이하에게는 酒라고 한다. 그런데 세주에 의하면 酒는 爵을 올린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酒의 ‘九徧’은 ‘九爵’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

를 바 없는 큰 규모의 외연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시에 『국조오례의』에서 마련한 이런 절차들이 결국 이후 시대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 결과가 후기 외연의 의식절차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조오례의』에서 후기 의례들과 달리 여러 朶才名과 九爵을 세밀히 밝혀주지 않은 이유는 선초 『국조오례의』와 후기 『진연의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즉 『국조오례의』는 해당 의례(여기서는 모든 「정지회의」)에 두루 통용될 ‘예식 절차’를 제시하는 일종의 규례집이고, 『진연의례』는 연향을 마친 후에 이미 설행되었던 의식 전반을 담아내는 일종의 보고집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지회의」의 내부로 들어가 정재 「가자」를 확인해 보자. <표1>에서 2단계는 <가자와 금슬>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 기록은 후기 의례들에서 歌者가 성악정재를 위해 場內에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한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¹⁵⁾.

그럼 이번엔 <가자와 금슬> 등장 前後 연회장 상황을 클로즈업해 보자. 우선 의미비중이 높은 축하객 ‘왕세자’와 ‘班首’¹⁶⁾ 각각 1,2 헌작을 마쳤다. 그리고 주요 헌작(1,2작) 단계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모든 축하객들은 ‘부복 사배’¹⁷⁾하고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간 상태다. <가자와 금슬>은 이때 등장한다. 등장은 연향 음악을 총지휘하는 典樂이 직접 인도한다. 이들이 들어선 후, 드디어 모든 축하객들은 주빈인 임금이 내려주시는 ‘饌物과 꽃’을 받는 기쁨을 누린다. 축하객들이 음식을 다 먹을

15) “典樂引歌者及琴瑟 分東西偏階 陞就位” 앞의 영인본, 145쪽 하단. 후기 외연의 기록은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307-317쪽.

16) 이들의 헌작은 반드시 ‘致詞’와 함께 드러진다는 점에서 ‘치사’ 없이 헌작되는 3작 이하보다 격이 높다. 임금의 ‘傳敎’도 전체 중 2작 치사 후에 내려진다. 신경숙, 같은 논문, 314쪽.

17) 여기서는 2작 후에 ‘사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爵과 爵 사이에는 ‘사배’가 없다. ‘사배’는 주로 의식의 첫 시작 부분 그리고 의식이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

때까지 3작은 시작되지 않는다. <가자와 금슬>은 이 절차 내내 場內 공연 중이다.¹⁸⁾ 여기서 후기 外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에 참여한 ‘왕세자 이하 모든 종친, 문무백관, 객사’들이 일제히 음식 먹기를 마칠 때까지(‘食畢’)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선초의 <가자와 금슬> 공연이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루어졌으리라는 것 역시 후기의 외연과 같다.

이상과 같이 「정지회의」가 3단계 구성의 의식절차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2단계에서 <가자와 금슬> 공연이 이루지는 것 등은 ‘후기 外宴’들과 동일한 구성이요, 동일한 절차방식이다.¹⁹⁾ 이로 보아 鮮初 「정지회의」에서 이미 <가자와 금슬> 공연이 후기와 동일한 목적, 구성, 공연방식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양로연의」

「養老宴儀」도 의식 절차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표2> 『국조오례의』, 「양로연의」²⁰⁾

‘준비’

각종 기물 배설

18) 바로 이 2단계 과정에는 앞의 단계들과 달리 ‘임금에게 탕을 올릴 때’ 외에는 일체 연주가 없다.(<표1> 참조) 즉 그 외의 순서에서는 <가자와 금슬>의 공연이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단계 과정의 ‘임금에게 탕을 올림’ 순서는 19세기에 들어서면 사라진다. 후기로 갈수록 2단계 절차를 ‘參宴諸臣들이 잔치향응을 받는 절차’로 좀더 확연한 구분을 만들어갔음을 의미한다.

19)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축하객들이 받는 찬물의 종류라든가, 이 순서에서 임금도 탕을 받는다면, 각각의 순서에서 축하객들이 하는 세부행동 지침 등은 다소 들고남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식 구성과 절차방식의 틀은 같다.

20) 『국조오례의』 영인본, 앞의 책, 213-215쪽.

전하 자리 오름

노인들 국궁, 拜, 再至²¹⁾

노인들 자기자리로 향할 때, 전하는 노인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남
전하와 노인들 자리에 앉음

‘제1단계’

전악이 歌者와 琴瑟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감

전하께 酒器 饌案 올림

노인들께 饌卓 드림

전하께 꽃 올림

노인들께 꽃 드림

전하께 膳 올림

노인들께 膳 드림

먹기를 마침

‘제2단계’

제1작 - 제조가 올림

노인들께 行酒

(이번 제조가 爵을 올리며 집사지는 노인들께 酒를 드림)

다음 차례의 進湯, 進爵을 나란히 위 예의와 똑같이 함

술은 5번 행함

전하께 大膳 올림

노인들께 膳 드림

‘정리’

모든 상 물림

노인들 국궁, 배, 재지

전하 전으로 돌아감

노인들 퇴장

21) ‘再至’는 재배할 때 몸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절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배려한 것이다.

「양로연의」에 참석하는 노인들은 80세 이상으로 品職別로 자리를 배정받는 받는다.²²⁾ 그리고 「양로연의」는 다른 연향과 달리 '임금과 참여 노인'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 이 연향의 목적이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에, 노인과 임금이 함께 주빈이 되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이 의식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는 임금과 노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다른 연향(앞의 「정지회의」 참조)에서 주빈 곧 왕에게 1,2작을 '먼저' 올리고 나서 參宴諸臣들에게 찬물과 술이 '나중'에 제공되는 것과 다르다. 양로연에서는 '주빈과 축하객'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곧바로 '주인공들인 임금과 노인'들이 '동시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 '2단계'에서야 드디어 임금께 爵을 올리는데 모두 5작을 올리고, 매 작마다 노인들에게 5번의 술이 돌아간다(음영 부분).

이제 「양로연의」 안에서 정재 「가자」를 확인해 보자. <표2>를 보면 첫 단계부터 <가자와 금술>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들의 등장 모습은 후기 의례들에서 歌者가 성악정재를 위해 場內에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²³⁾. 앞의 「정지회의」와 달리 양로연에서 <가자와 금술>을 제일 앞에 배치한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빈객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빈인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정지회의」에서 주빈에게 '먼저' 작을 올리듯, 「양로연의」의 공동의 주빈에게 '먼저' 음식 올리는 절차를 갖기 위해 <가자와 금술> 공연이 필요했던 것이다. 임금과 노인은 <가자와 금술>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함께 술, 꽃, 음식을 즐긴다. 「食畢」 곧 먹기를 마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앞의 「정지회의」 경우와 같이 <가자와 금술>은 이 시간동안 내내 노인들과 임금이 음식 먹는 일을 다 할 때까지 장시간 공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자

22) “羣老年八十以上”.

23) “典樂引歌者及琴瑟 分東西偏階 陞就位”.

와 금슬) 공연으로 이 의례를 시작하는 것은 노인들을 위로하고 그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양로연의 목적을 '절차의 배치'로 드러내기 위한 아주 적절한 의식구조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양로연의」가 2단계 구성의 의식절차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첫 단계에서부터 <가자와 금슬> 공연이 이루지는 것 등은 '후기 養老宴', 곧 숙종조 「(己亥)진연의」나 정조 때 화성에서 베풀어진 「화성낙남헌친림양로연의(華城洛南軒親臨養老宴儀)」와 동일한 구성이요, 동일한 절차방식이다.²⁴⁾ 이로 보아 鮮初 「양로연의」에서 이미 <가자와 금슬> 공연은 후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정식화되고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조속오례의』 외연의 <가자와 금슬> 공연

3-1. 『국조속오례의』의 외연들

『국조속오례의』는 영조 20년에 왕명에 의해 『국조오례의』를 수정 보완해서 완성한 의례집이다. 선초에 만들어진 『국조오례의』를 약 250년 이상 시행해오는 사이 禮가 해이해지고 制度로써 아름답지 못한 것, 俗되어서 준행할 수 없는 것, 時代에 맞지 않는 것 등을 바로잡아²⁵⁾ 조선 후기에 맞는 규례집으로 거듭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선초로부터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儀式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글의 관심인 <가자와 금슬>도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조속오례의』의 '가례'에는 모두 20가지의 의례를 연향사례의 전범

24) 후기 '양로연의'에 대해서는 3장의 「친림기로연의」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25) 이이하, 『국조오례의해제』, 『국조오례의』 영인본, 앞의 책, 4쪽.

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 국조오례의에서 제정되었으나 실제 행해지지 않는 다수를 삭제시켜 실제에 도움 되도록 수정했음을 의례의 數字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外宴에 해당하는 연향으로는 「進宴儀」 「親臨耆老宴儀」 「御宴儀」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의례들은 선초 『국조오례의』의 「정지회의」 「양로연의」처럼 의식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규례집 만든 아니다. 이 의례들은 ‘이미 시행되었던 儀式들’이 각각 의례의 전범으로 선택 등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 의례들에는 기존에 행해진 의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전범으로 삼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담은 ‘尾註’를 붙여놓고 있다. 미주에 의하면, 「진연의」는 숙종 32년(1706) 인정전에서 있었던 진연을, 「친림기로연의」는 숙종 45년(1719) 경현당 진연을, 「어연의」는 영조 19년(1743) 명정전 어연을 수록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 세 의례들 중에서 「진연의」 「친림기로연의」만을 대상으로 삼고, 「어연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명정전 어연’인 이 「어연의」는 종래에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진행된 매우 시험적인 연향이었다. 「어연의」 미주에 의하면 이 의례는 다른 연향악과 달리 雅樂을 함께 사용해서 ‘雅俗樂兼行’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는 세종 때의 ‘양로연의’를 본뜬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세종 때라 함은 ‘세종 오례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후에 성종 때 『국조오례의』의 기초가 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어연의」에 대한 접근은 세종 오례의의 성격, 세종 성종 연간 오례의에 대한 인식변화, 영조의 아악 부활, 영조의 시험적 어연 시도의 의미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연구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하여 「어연의」를 대상에서 제외코자 한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어연의」를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논의에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커다란 문제들과 연루된 이 ‘어연’을 제외함으로써 논의의 선명

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글의 결론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국조속오례의』의 나머지 두 외연만 다루어도 이 글이 목표로 한 ‘조선조 외연에서의 정재 「가자」의 존재파악」은 충분하기 때문이다.²⁶⁾

그럼 「진연의」와 「친림기로연의」 두 의례를 통해 후기의 정재 「가자」를 알아보기로 한다.

3-2. 「진연의」

먼저 『국조속오례의』 「진연의」 말미에 있는 尾註를 통해, 당시 선택된 의례와 그 의례가 전범이 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숙종 병술년에 이 의례를 행했다.○주상께서 계해년에 하교하시기를 “외연에 무동을 사용한 것은 병술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를 본(本) 의주(儀註)에 주(註)로 붙여서 후에 상고케 하라.” 하셨다.²⁷⁾

숙종 32년 병술년(1706)에 행해진 의식이 당시 대표적인 「진연의」로 수록되었으며, 그 이유는 병술년 당시 外宴에서 처음 舞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하교한 계해년은 영조 19년(1743)이다. 바로 이 해에 『국조속오례의』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註는 영조가 『국조속오례의』에 등록시킬 대표적인 ‘진연의식’으로 병술년 진연을 직접 지목한 사실을 알려준다.²⁸⁾

26) 「어연의」에 대한 글은 곧 이어질 필자의 후고에서 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27) “肅宗丙戌行此儀○今上癸亥下教曰 外宴用舞童 丙戌初行也 本儀附註□備攷後” 『국조오례의』 영인본, 앞의 책, 530쪽. 본고에서 지금까지 텍스트로 삼은 『국조오례의』 영인본 안에는 『국조속오례의』도 함께 영인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 『국조속오례의』도 같은 책을 텍스트로 삼고, 인용 시 동일하게 쪽수만을 밝혀주기로 한다.
 28) 병술년 진연이 ‘임금의 즉위 30년을 축하하는 진연’으로 후기에 전범이 되었을 것임을 논한 김영운의 글이 참고가 된다. 김영운, 「조선후기 국연의 악무연구」,

이제 『국조속오례의』의 「진연의」 절차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표3〉 『국조속오례의』, 「진연의」²⁹⁾

‘준비’

각종 기물 배설
종친 문무응참관 자리에 나아감
왕세자 나아옴
전하 輿에서 내려 座에 오름
왕세자 이하 四拜

전하께 酒器, 揮巾, 饌案, 別行果, 花盤, 塩水, 小膳 올림

‘제1단계’

제1작 - 왕세자가 올림
치사 올림
전하 술잔을 들
고기(割肉), 만두 올림
제2작 - 班首가 올림
치사 올림
傳敎를 내림
전하 술잔을 들

왕세자 이하 三叩頭, 山呼, 再山呼, 四拜
왕세자 이하 종친 문무응참관 자기 자리로 돌아감

‘제2단계’

전악이 歌者와 琴瑟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감

왕세자에게 饌卓, 별행과, 꽃 드림
종친, 문무관에게 찬탁, 꽃 나누어줌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권1, 민속원, 2003, 49쪽.
29) 『국조오례의』 영인본, 같은 책, 527-530쪽.

전하에게 탕 올림 (曲舞 是 때에 饗음 받음)

왕세자 이하 자리에서 떠나 부복해 있다가 돌아옴 (진탕 진작 때에도 동일)

왕세자에게 탕 드림
종친, 문무관에게 탕 드림.
먹기를 마침

‘제3단계’

제3작 - 宰臣이 올림

전하 술잔을 들
왕세자에게 술 드림
종친, 문무관에게 술 돌림
탕, 술 올림

술 9번 두루 돌림

小膳을 올림
大膳을 올림
왕세자에게 饌 드림
종친 문무백관 객사에게 膳 드림

‘정리’

모든 상 물림
왕세자 이하 四拜
전하 좌에서 내려 여를 타고 안으로 들어감 (고취)
왕세자 퇴장
종친, 문무백관 퇴장

위 절차에도 秀才는 보이지 않고, 爵도 3작까지만 나와 있다. 그러나 정재는 때에 맞추어 품지 받아 공연한다는 것, 작은 모두 9작까지 행해 진다는 사실을 위 음영 부분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실제 거행된 의식을 모델로 삼아 제시했지만, 기록방식에서는 『국조오례의』와 같이 규례집 성격에 맞추어 작성 편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진연의」가 병술년 진연을 모델로 삼았다고 했는데, ‘병술년 진연’에 대한 기록은 실

록에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그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숙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爵은 九爵까지 행해졌으며, 3작부터 매 작마다 朶才가 공연되었다.³¹⁾ 구체적으로는 <표3>에서처럼 정제 품지를 받은 후, 3작부터 초무, 아박, 향발, 무고, 광수, 향발, 광수, 처용가의 순으로 여덟 번 공연이 있었다.³²⁾ 한편 실록에는 <가자와 금슬>의 공연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조속오례의』는 정제 종목과 작을 일일이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절차 진행을 드러내는 방법은 훨씬 논리적이고 구조적임을 알 수 있다. 규례집의 성격에 맞춘 적합한 편집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진연의」의 내부로 들어가 정제 「가자」를 확인해 보자. <표3>의 2단계를 보면, <가자와 금슬>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 기록 역시 선초 『국조오례의』 「정지회의」 「양로연의」에서 歌者가 노래를 하기 위해 場內에 들어오는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³³⁾. 물론 鮮初와 다름없이 ‘축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절차’에서 공연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자와 금슬>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외연의 똑같은 절차에서, 동일한 목적 하에, 한결같이 공연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가자와 금슬> 공연에는 鮮初와 비교하여 몇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포착된다. 우선 첫 단계와 둘째 단계를 구분 짓는 절차가 강화되어졌다. 선초 오례의에서는 축하객들의 ‘四拜’ 뿐이었는데, 여기 후기 속오례의에서는 ‘三叩頭, 山呼, 再山呼, 四拜’로 주빈인 왕에게 받치는 공경의 예가 훨씬 강화되어 있다. 이는 주빈 왕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 행사의 일단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이

30) 진연의례는 남아 있지 않다.

31) 『숙종실록』 32년, 병술, 8월 27일조.

32) 마지막의 두 정제 ‘광수’와 ‘처용무’는 제9작에서 연이어 공연되었다.

33) “典樂引歌者及琴瑟 分東西偏階 陞就位”.

절차에서 왕세자가 받는 찬물은 선초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별행과가 추가되고 있다. 다시 19세기 순조 때에 이르면, 왕세자가 받는 향응은 더욱 늘어나 '취진, 찬안, 별행과, 꽃, 술, 탕, 만두'로 확대된다. 후기로 갈수록 진연의식이 화려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후기로 갈수록 〈가자와 금슬〉 공연 순서의 의식절차는 더욱 의미비중이 커지고 때로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3-3. 「친림기로연의」

여기서도 먼저 『국조속오례의』 「친림기로연의」 말미의 尾註를 통해, 당시 선택된 의례와 그 의례가 전범 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숙종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가신 후 원서(原書)의 '양로연의'를 본떠 이 의례를 행했다.³⁴⁾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열었던 진연의식을 당시 대표적인 「친림기로연의」로 수록했다. 그리고 숙종조 이 진연의식은 原書 곧 '선초 『국조오례의』의 「양로연의」를 준거로 삼아 의식절차를 만들었기에 전범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숙종의 '入耆老所' 기념 의식은 숙종 45년(1719) 己亥년에 베풀어진 연향의식을 말한다. 이 의식은 『(기해)진연의례』로 남겨져 있다.³⁵⁾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숙종은 선초 오례의의 「양로연의」를 본떠 入耆老所 기념 「진연의」를 열었는데, 영조는 속오례의를 통해 이를 「친림기로연의」라는 명칭으

34) “肅宗入耆社後 做原書養老宴儀 行此儀”, 『국조오례의』 영인본, 앞의 책, 521쪽.

35) 『(肅宗朝 己亥)進宴儀軌』, 한국학자료총서 13, 은하출판사, 1989.와 『國譯 肅宗朝己亥進宴儀軌』, 민속원, 2001.가 있다. 후자의 책은 번역과 함께 영인본도 실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속종 영조 모두 ‘양로연’ ‘기로연’ ‘진연’을 같은 성격의 연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고가 선초의 「양로연의」를 후기 진연의식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한 것도 ‘그 의식의 내용’뿐 아니라 이상과 같은 ‘이 시기 논리’를 따른 것이다.

이제 「친림기로연의」의 절차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표4〉 『국조속오례의』, 「친림기로연의」³⁶⁾

‘준비’

각종 기물 배설
전하 자리 오름
왕세자 및 耆老諸臣들 四拜

‘제1단계’

전악이 歌者와 琴瑟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감

전하께 酒器, 揮巾, 饌案, 別行果 올림
왕세자에게 饌卓, 別行果 드림
기로제신들에게 饌卓 드림
전하께 꽃 올림
왕세자와 기로제신에게 꽃 드림
전하께 小膳 올림
(꽃, 소선, 작, 탕 올릴 때, 참연자들은 나아가 부복 후 돌아옴)
왕세자와 기로제신에게 膳 드림
먹기를 마침

‘제2단계’

尊崇樂章 維天之曲’ - 典樂이 창함
제1작 - 제조가 올림
왕세자와 기로제신에게 酒 드림
전하 술잔을 들

36) 『국조속오례의』 영인본, 앞의 책, 519-521쪽.

〔배변·임금에게 解 올리면 왕세자와 기로제신에게도 膳을 드림〕

전하게 고기(割肉), 만두, 탕, 작 올림

〔술은 5번 행함〕

전하게 大膳 올림

왕세자와 기로제신에게 膳 드림

‘정리’

모든 상 물림

왕세자와 기로제신 四拜

전하 안으로 들어감

왕세자와 기로제신 퇴장

숙종조에 거행된 이 의식은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이는 선초 「양로연의」와 거의 흡사해, 그 의식을 본 따서 만들었음이 쉬 확인된다. 후기 양로연으로는 이 외에도 정조 때(1795, 乙卯年) 화성에서 행해진 「화성낙남헌친림양로연의(華城洛南軒親臨養老宴儀)」가 더 있다.³⁷⁾ 이때의 양로연도 동일한 두 단계 구조로 전개되었다. 선초 규례가 후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음이 다시 확인된다.³⁸⁾

위 의식은 모두 5작(음영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초와 같으나, 몇 가지 점에서 변화가 발견된다. 우선 노인들을 향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임금을 향해 절하는 법이 ‘拜, 再至’에서 ‘四拜’라는 일반적인 연향의식의 법도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선초에는 노인들이 자기자리에 나아갈 때 임금은 이들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의 뜻을 표했었으나, 숙종조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정조 때 행해진 양로연에서는 다시 이 두 가지 모두 선초 「양로연의」의 예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숙종 대의 달라짐은 숙종 자신이

37) 『원행을묘정리의례』 영인본, 수원시, 1996, 85-86쪽.

38) 다만 정조 때 화성 양로연은 모두 3작으로 이루어졌고, 선초와 숙종 때의 양로·기로연은 5작으로 구성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기로소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어 耆老諸臣과 동등한 '老人'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이 시기 줄어들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숙종조에는 2단계 제1작을 올리기 전에 「樂章」이 불려졌다. 역시 뒤 이어지는 정조 때에도 '악장'이 사용되었다. 이 악장은 임금에게 제1爵을 올리기 전에 불렸다는 점에서 '선창' 악장과 같다. 외연에서의 악장은 선창악장만 사용되고 후창악장은 사용되지 않는 것은 후기 외연의 일반적인 형식이다.³⁹⁾ 위 숙종조 「친림기로연의」와 정조 때 「화성 양로연의」에서도 동일하게 선창악장만 사용되고, 후창악장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악장의 사용'은 양로연이 후대로 갈수록 선초보다 훨씬 격식을 갖춘 국가의식으로 변화해가고 있었고, 『국조속오례의』는 이런 후기적 변화를 전범화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친림기로연의」 내부로 들어가 정제 「가자」를 확인해 보자. <표 4>를 보면 선초 「양로연의」와 동일하게 첫 단계부터 <가자와 금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은 선초 「양로연의」 「정지회의」에서 歌者가 노래를 하기 위해 場內에 들어오는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⁴⁰⁾. 물론 선초와 다름없이 「양로연의」의 공동 주빈인 '임금과 기로제신'이 '동시에' 음식을 나누는 절차에서 공연되었다.

이상과 같이 「친림기로연의」는 2단계 구성의 의식절차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첫 단계에서부터 <가자와 금슬>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 등이 鮮初의 「양로연의」와 동일한 구성이요, 동일한 절차방식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거듭 말하지만, 숙종 때에 『국조속오례의』를 참고해서 「진연의」 곧 「친림기로연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후기 「양로연의」에서의 <가자와 금슬> 공연도 鮮初를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39) 신경숙, 「19세기 진연문화와 문학」, 79쪽.

40) “典樂引歌者及琴瑟 分東西偏階 陞就位”.

4. 결어: 외연의 오래된 성악정재, 「가자」

19세기 외연에서 공연되었던 성악정재 「歌者」는 이제 더 이상 조선 후기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미 鮮初부터 계속적으로 궁중연향에서 공연되어 왔음이 『국조오례의』(1474), 『국조속오례의』(1743)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기의 의례들은 자주 선초에 마련된 양식들을 본뜨고 따르기도 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자료들은 한번도 ‘정재 「歌者」’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준 적이 없다. 그러나 ‘19세기 정재 「歌者」’와 동일한 의식, 동일한 공연방식, 동일한 공연목적 등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제 〈歌者와 琴瑟〉로 표현되어 온 성악정재 「가자」는 조선 초부터 성립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外宴만의 역사 깊은 畵才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성악정재 「가자」에서는 과연 어떤 노래들이 불렸을까? 더욱이 「가자」는 여항가객들을 초빙하여, 우리말 가요를 장시간 공연케 했으니 그 노래들의 정체는 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외연에서 불린 성악정재의 노래목록을 찾아가는 일이 다음의 작업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 영인본, 민창문화사, 1994.
 『국역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속종실록」.
 『(기해) 진연의궤』, 한국학자료총서 13, 은하출판사, 1989.
 『국역 속종소기해진연의궤』, 민속원, 2001.
 『원행음묘정리의궤』, 영인본, 수원시, 1996.
 이이화, 「국조오례의해제」, 『국조오례의』, 영인본, 민창문화사, 1994.
 김영운, 「조선후기 국연의 악무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

- 화』 권1, 민속원, 2003.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 _____, 「순조조 외연의 한글악장」,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 _____,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 - 야연의 〈악가삼장〉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_____, 「19세기 진연문학과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권2, 민속원, 2005.

<Abstract>

A Singing Visitors Activity at Royal Banquet
in Chosun Dynasty

Shin Kyung-Sook

There are the <Kaja(歌者)> at Royal Banquet(Woiyon, 외연) in the 19th Chosun Dynasty. The <Kaja(歌者)> is a performance at Royal Banquet by Singing Visitors in Chosun Dynasty. The <Kaja> was performed by the singing male visitors for long times. They sang some Korean Alphabet Songs while congratulators were enjoying the food and drink.

The purpose of this written essay is to search the existense of <Kaja> before the 19th century. I show the results as follows.

1. There are the records of the performed <Kaja> in the *Kukjo-Olyeei* (國朝五禮儀). *Kukjo-Olyeei*(國朝五禮儀) is a book of the royal

various ceremonial rules in Ealy Chosun Dynasty.

2. There are the records of the performed <Kaja> in the *Kukjo-SokOlyeei*(國朝續五禮儀). *Kukjo-SokOlyeei*(國朝五禮儀) is a book of the royal various ceremonial rules in Late Chosun Dynasty.
3. All of the <Kaja> is the same in the order and form.
4. In conclusion the <Kaja> was performed always in Chosun Dynasty.

Keywords : Royal Banquet(Woiyon), Singing Visitors, *Kukjo-Olyeei*, *Kukjo-SokOlyeei*, Korean Alphabet Songs, royal various ceremonial rules, Kaja

논문투고일 : 2005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5년 7월 7일